

牧師所感：韓国の日本宣教師 李在雨牧師

李牧師は1997年3月、韓国 アッセンブリー教団から日本に派遣された牧師である。のみでなく李牧師は詩人でもある。最近心を込めて詠んだ詩をご紹介する。

曠野 李在雨

あゝわたしは出て行きたい　わたしは生かされたい
世の中で最も安全な所は　ここしかないと人々はわたしを
この本の中だけに　閉じ込めて置いたのだ
あゝわたしは息を続けたい
わたしを見るのが嫌なら　わたしをあの深い山に置いておくのだ
ならば　鳥達が私を歌うはずだ
わたしを見るのが嫌ならば　わたしをあの深い海に投げ入れておくれ
ならば　静まり返っていた波が叫ぶだろう
わたしを見るのが嫌ならば　あの荒れ果てた曠野に私を投げ入れるのだ
むれ
ならば　砂ぼこりが　あの角の立った石群が　私を歌うだろう
で　わたしは　曠野の食卓になったのだ
で　わたしは　曠野で叫ぶ者になったのだ

広野の招待

광야

아 나는 나가고 싶다
나는 살고 싶다
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
여기 밖에는 없다고
사람들은 나를
이 책속에만 가두어 놓았네
아 나는 숨쉬고 싶다
나 보기가 싫거든
나를 저 깊은 산에 놓아둬
그러면 새들이 나를 노래할거야
나 보기가 싫거든
나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줘
그러면 잠자던 파도가 소리칠거야
나 보기가 싫거든
저 거친 광야에 나를 던져줘
그러면 모래바람이
저 모난 돌들이
나를 노래할거야
그래서 나는
광야의 식탁이 되었네
그래서 나는
광야에서 외치는 자 되었네

광야의 시 Note
시78편은 디워왕 때 예배음악 세정에
크게 공헌한 악사 '아상'의 시다.
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
'지들이 하나님의 봉사에 대적하여 말하기를
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
준비하시라'고 이스라엘은
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.
그러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
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하셨고
광야 백성을 쳐 물은 강강이 흐르게
하사 미시게 하시며 능히
미로 주시고 고기를 주셨다."
(시78:17-19)
'광야'의 시 주어'나'는
하나님의 말씀이고
생명의 말씀인 성경입니다.
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드
반아 들이 저 암는 사람들로
안타까워 하시는
주님의 마음이 '광야'고
나는 들판 목마름에
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
마음 또한 '광야'입니다.

李在雨宣教師profile
1961.1.16 강원도 홍천 출생
1997.3韓国アッセンブリー教団
利川純福音教会日本宣教師派遣
元주민선교·교회개척/제자훈련
시와창이 문서선교
구주구리 기도의집 건축
090-8344-8851
*2004.4.16 (구주구리 창립예배)을 축하하고
축복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
이제부터 구주구리 기도의집은 주께서
예배하시는 광야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.
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